

2021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

함께 성장하고 이어지는 영도 기획자의 집



함께 성장하고 이어지는 영도 기획자의 집

2021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

사람·자연·역사를 잇는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항구 도시 부산의 역사적 발자취와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의 보고 영도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라는 비전 아래 영도의 역사·자연·생활 자산이 미래에도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영도의 문화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도문화도시센터

'성장과 연결'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일상에 예술이 흐르는 예술의 도시, 도시 문제를 문화로 승화하는 창의 도시, 시민과 함께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자치의 도시를 표방합니다. 문화 도시 영도를 총괄하는 영도문화도시센터는 다양한 도시 정책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도시문화경영전문집단으로 영도가 명실 상부한 '예술과 도시의 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
함께 성장하고 사랑하는
영도 기획자의 집



Content

함께 성장하고 이어지는 영도 기획자의 집

여는 글	“여러분의 성장 여정을 응원합니다.”	7
1장 영도 기획자의 집 올해의 여정	영도 기획자의 집 소개	10
	영도 기획자의 집 올해 발자취	11
	영도 기획자의 집 진행 과정	14
2장 우리들의 배움과 도전	1. ‘나’에서 시작하는 ‘실험문화기획과정’	22
	실험문화기획과정 프로젝트 이야기	
	2. 생태 감수성을 실천하는 ‘생태문화기획과정’	30
	생태문화기획과정 프로젝트 이야기	
	3. 관점의 전환 ‘모두의여행기획과정’	38
	모두의여행기획과정 프로젝트 이야기	
	4. 문화의 시작과 끝 ‘아카이브기획과정’	50
	아카이브기획과정 프로젝트 이야기	
	5. 디자인으로 잇는 ‘디자인기획과정’	58
	디자인기획과정 프로젝트 이야기	
	6. 2020년 졸업생 후속 프로젝트 ‘기획자의 밤’	66
	기획자의 밤 프로젝트 이야기	

3장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	변화와 성장에 대한 랜선 인터뷰	74
4장 우리들의 다음 여정	넥스트 영도 기획자의 집	84
	스스로에게 보내는 행운 편지	86
	2021년을 돌아보며, 담당 크루들의 한마디	87
	닫는 글 “나다움을 발견하는 즐거움”	88
	함께해 주신 분들	89

여는 글

“여러분의 성장 여정을 응원합니다.”

어느덧 문화 도시 사업도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영도 기획자의 집은 현장 동료들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던 터라 다른 어느 사업보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5명의 크루가 각각 본인 사업과 연관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태도를 배우는 기초, 협업을 익히는 공통 워크숍, 경험을 쌓는 실험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때로는 흥미롭고 때로는 버겁기도 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화 기획이라는 것이 거창해 보여도 사실 자신의 욕구에서 시작합니다. ‘내 삶을, 내 동네를 어떻게 조금 더 바꾸어 볼까’라는 실천이 곧 기획입니다.

이번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의 결과물을 보고 소회를 들으며 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인생 그래프를 그리셨구나, 이렇게 이웃을 만나셨구나, 이런 흥미 있는 실천을 하셨구나’ 하면서 저 역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여러분의 성장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더불어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을 조금 더 잘 닦아 놓고 있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타인의 삶도 보인다고 하지요. 2021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2년은 더욱 깊이 자신과 타인의 삶을 살펴보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도문화도시센터
고윤정 센터장

1장 영도 기획자의 집 올해의 여정

영도 기획자의 집 소개

영도 기획자의 집 올해 발자취

영도 기획자의 집 진행 과정

영도 기획자의 집 소개

우리들의 출발점

“문화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갈 사람이 필요해.”

“어떤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나요?”

“자신의 삶과 세상을 보다 문화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사람들!”

‘영도 기획자의 집’은 문화 도시 영도를

함께 만들어 갈 문화 기획자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출발점이자, 연결점이 되고자 합니다. 나를 탐구하고, 지역을 탐험하며 새로운 문화적 실천과 실험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추진 목적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도시 의제를 문화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기획자 발굴 및 성장
추진 방향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배움 의 기회 지원 영도에서 다양한 욕구와 생각을 실험하고자 하는 누구나 모일 수 있는 만남의 장 마련 문화 기획자로서 지역에서 다양한 삶의 경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적 일거리 연결
우리들의 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운영 과정	내용
실험문화기획과정	‘나’를 탐구하고 성찰해 보며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고, 나만의 문화적 실험을 해보는 과정
생태문화기획과정	생태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을 과정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살펴보고, 영도를 기반으로 한 지역생태프로젝트를 실천해 보는 과정
모두의여행기획과정	지역의 여러 가지 여행 장벽을 탐색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여행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보는 과정
아카이브기획과정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자신의 시각으로 기록하고, 아카이빙의 활용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문화 기획을 실현해 보는 과정
디자인기획과정	지역을 디자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지역민들의 일과 생활에 결합될 디자인 잇기 프로젝트를 해보는 과정

영도 기획자의 집 올해 반자취

영도 기획자의 집은 6~12월까지 6개월간 달려왔습니다.

총 5개 과정에 74명이 참여해서 52명이 수료

수료율 70%

수료생 52명 기준 영도 주민 22명이 참여했습니다.

영도 주민 42%

수료생 52명 기준 20대 27명, 30대 14명, 40대 7명, 50대 이상 4명이 참여했습니다.

청년 79%

‘나’와 ‘영도’를 탐색해 보는 워크숍부터 멘토링까지 다양한 영역의 기획자와 149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149

자신의 욕구와 문화적 상상력을 실현해 보는 45개의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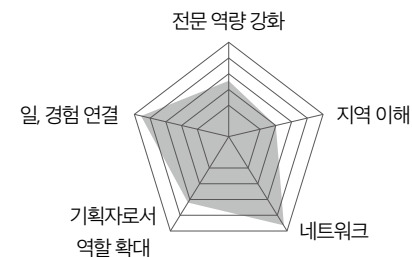
45

수료생 29명의 다양한 문화 기획 경험과 일거리를 연결했습니다. *협력 크루, 문화 도시 프로젝트 참여, 공모, 취창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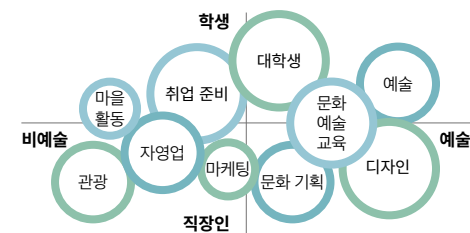
55.7%

영도 기획자의 집 수료생 52명에게 물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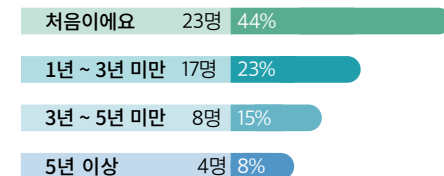
영도 기획자의 집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문화 기획 활동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나요?





영도 기획자의 집 특별한 연결

동료 연결

혼자보다는, 서로 연결되면
용기가 나서 끝까지 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영도 기획자의 집은 함께
작당 모의를 해 볼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 갑니다.

기획자의 집 네트워킹

- 공통 워크숍 6회
- 협업 프로젝트 3명
- 팀 구성 2명

졸업생 커뮤니티 운영 2021. 9. ~ 12.

- 2020 영도가 문화학교 후속 프로젝트
'기획자의 밤'
- 협업 기획자 '기억과 부엌 사이 김미양'
- * 20~21년도 졸업생
- 다리 건너 동창회
- 선배 기획자와의 만남 밤 소풍 3회
- 작당 모의 3팀

청년 기획자 지역 간 교류 2021. 12. 14. (화)

영도&원주 청년 기획자 교류
간담회

문화적 일거리 연결

지역에서 문화 기획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일거리 경험을 연결합니다.

협력 크루

- 기획자의 집 코디네이터
- 축제 홍보·운영 스태프

지역 협업 프로젝트

- 영도 내 소상공인 매칭
'디자인 잇기'

영도문화도시센터 협업 프로젝트

- 기획자의 밤 커뮤니티 운영
- 마을 상상 프로젝트 모니터링
- 정원가의 열두 달 전시 참여
- 아카이브 리서처
-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졸업생이 말하는 영도 기획자의 집 의미

문화적 일거리

“참여 후 기획자로서 입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청년 기획단으로 참여하거나, 개인적으로 일거리가
연결되는 등 저의 네트워크가 넓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가능성

“문화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후속 지원까지 기획자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기획자로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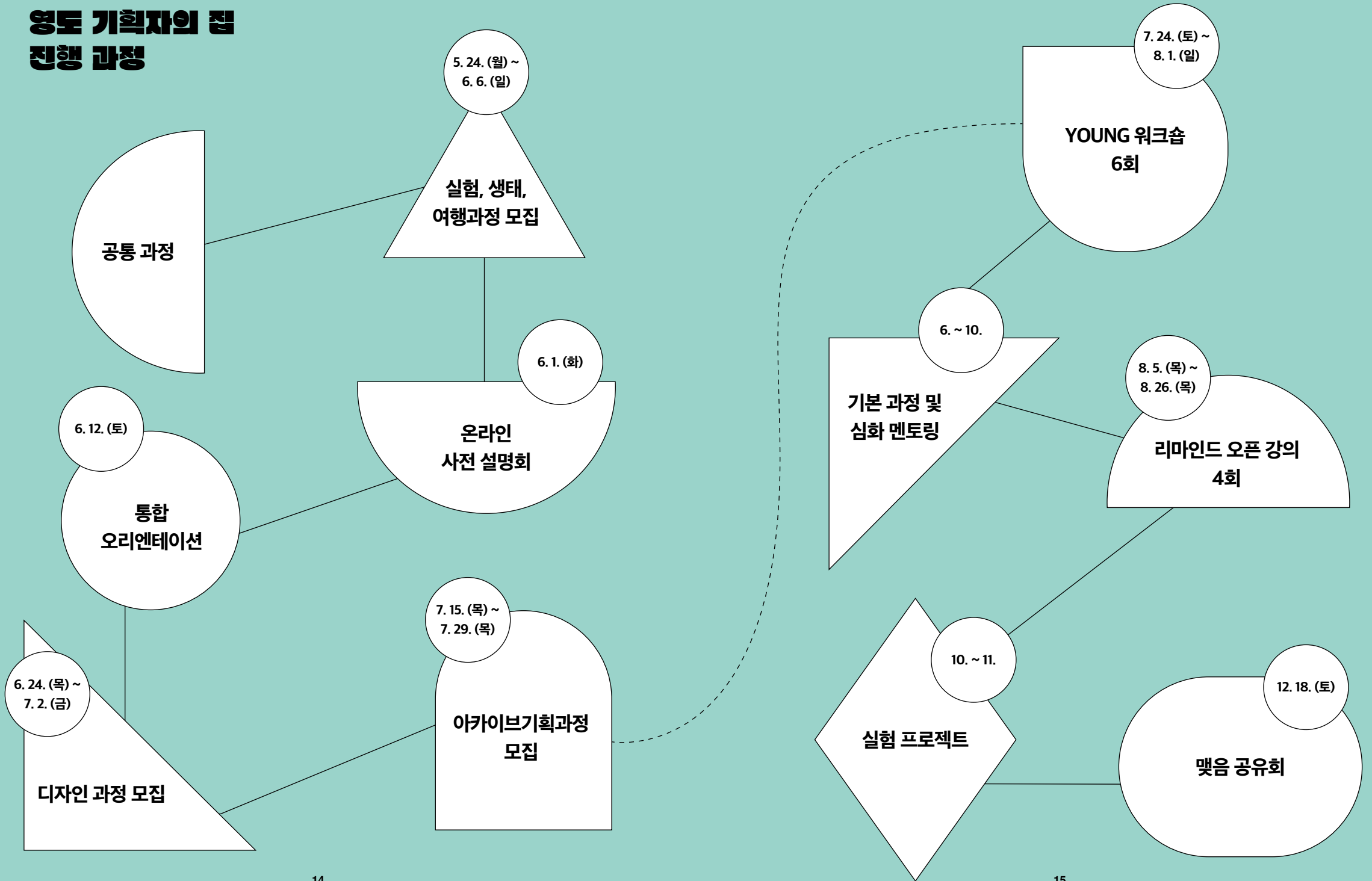
동료 찾기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혼자 하기는 어렵다 보니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팀원을
찾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영도의 새로운 발견

“수료 전에는 단순한 거주지, 언젠가는 떠나야 될
곳이었지만, 수료 후 영도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여러 곳을 탐험하면서 제2의 고향 같은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생 정착해서 살고자 합니다.”

영도 기획자의 집 진행 과정



일자 | 2021. 6. 12. (토)

장소 |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참여 인원 | 50명

진행 내용 | 영도 기획자의 집 사업 안내 및 문화 도시 영도 특강, 참여자와 함께 만드는 약속 등



기간 | 2021. 7. 24. (토) ~ 8. 1. (일)

장소 | 영도희망21 연습실,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참여 인원 | 69명

진행 내용 | 영도 문화 도시 청년 워킹 그룹이 직접 기획한 네트워킹과 재충전을 위한 워크숍 진행

몸, 마음 열기 워크숍

관계 형성을 위한 연극 놀이를 통해 스스로를 마주하고, 문화 예술적 감각을 깨우는 움직임 워크숍



협업 기획자 청년문화로협동조합
이지안, 정하연 기획자

영도 소리 여행단

영도를 소리로 여행하고, 오디오 브이로그 형태로 탐별 기록을 남기면서 영도의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매력을 느껴보는 워크숍



협업 기획자 051FM 정욱교 기획자

영도 식재료 잡화점

영도에서 자생하는 식재료와 식문화 이야기를 통해 영도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네트워킹 미션을 수행하며 나만의 영도 도시락을 만들어 보는 워크숍



협업 기획자 라이스케이터링
한지성, 한수련 기획자

기간 | 2021. 8. 5. (목) ~ 8. 26. (목)

장소 | 온라인 ZOOM

참여 인원 | 100명

진행 내용 | 기초 소양 및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참여자가 제안하는 주제·강사 매칭형 강의

회차	일시	강의 주제	강사
1	8. 5. (목) 19:00~21:00	온택트 시대, 커뮤니티 플랫폼 · 지속적인 커뮤니티와 사회적 인프라 · 커뮤니티의 위기, 기획에서 커뮤니티가 강조되는 이유	정은빈 청춘여가연구소 대표
2	8. 12. (목) 19:00~21:00	내 삶의 의례와 문화 기획 · 생활과 일이 서로를 닮는 바람에서 시작된 삶의 의례 · 리서치적 태도가 바탕이 된 나답게 살기 위한 문화적 분투	임재춘 스튜디오104 대표
3	8. 19. (목) 19:00~21:00	안전하고 성평등한 문화 기획 만들기 · 안전하고 성평등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기획자의 감수성 · 현장에 필요한 체크 리스트 만들기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연대 공동 대표
4	8. 26. (목) 19:00~21:00	문화 다양성으로 보는 영도 문화 도시 A to Z · 영도문화도시센터의 비전을 위한 액션 플랜 · 영도 주민, 참여자, 크루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남다른 센터 되기	고윤정 영도문화도시센터장

일자 | 2021. 12. 18. (토)

장소 | 영도창의산업공간

참여 인원 | 90명

진행 내용 | 영도 기획자의 집 성과 토크 쇼 및 성과 전시, 졸업생 리마인드 체험 부스, 개별 공유회 등

#1 성과 토크 쇼

- 기획자의 집 성과 공유
- 졸업생 5인의 성장 이야기
- 송민정 '영도에서 나의 속도를 찾다'
- 이수정 '나의 정체성을 담은 나만의 기획'
- 이동수 '영도에서 일하고, 배우고, 기획하고'
- 임현진 '영도에서 시작된 나의 디자인'



#2 성과 전시 '기획자의 방'

- 진행 과정, 실험 결과물,
졸업생 성장 이야기 전시
- 기획자를 위한 워크북 추천,
기획자의 길 다짐 공유



#3 졸업생 리마인드 체험 부스

- 김예은 '나만의 잡지 만들기'
- 이지현 '리사이클 마스크 걸이 만들기'
- 정하영 '원 라인 명함 만들기'
- 즉석 사진 부스



#4 졸업 파티 '기획자의 밤'

- 과정별 개별 공유회
- 이광혁 artist 루프스테이션 공연
- 기획자의 집 별난 시상식



2장 우리들의 배움과 도전

‘나’에서 시작하는 ‘실험문화기획과정’

생태 감수성을 실천하는 ‘생태문화기획과정’

관점의 전환 ‘모두의여행기획과정’

문화의 시작과 끝 ‘아카이브기획과정’

디자인으로 잇는 ‘디자인기획과정’



2021 기획자의 집
졸업생 프로젝트 보러 가기

'나'에서 시작하는 '실험문화기획과정'

‘나’로부터 시작하는 실험문화기획과정은 다양한 질문이 수업의 교재가 됩니다. 자기 탐구를 통해 내 안의 욕구를 찾고, 시행착오 속에서 도전 의식과 실천력을 길러 봅니다.

기본 과정

2021. 6. 16. ~ 7. 17.

실습형 강의

소그룹 인터뷰와 개인 과제를 통해 문화 기획자로서 자기 질문과 고민을 해 보는 시간

내 삶의 연구자, 현장의 실험가

서현선 진저티프로젝트

안전한 실험실 만들기, 나의 작당 모의 대상자와 비슷한 사람을 인터뷰하고 함께 미션 회고하기

나를 닮은 시간으로부터

최선영 유구리 최실장

삶과 기획이 연결되는 법 고민하기, '나'를 위한 질문 만들고 인터뷰하기

주변으로 퍼지는 문화 기획

조정훈 우리동네사람들

일, 놀이, 배움, 주거를 함께하는 우동사 이야기와 자신의 기획 레시피 만들기

문화적 사회 혁신을 위한 살아 있는 실험실

천영환 퓨처스리빙랩

기획에 지속 가능성을 만들고 증명하기

디자인 씽킹 워크숍

와우디랩

공감 기반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한 팀 협업 경험

현장 탐방 '콜링영도'

영도 곳곳에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 기획자, 공간을 만나는 현장 탐방 수업

'나'를 잃지 않고 일하는 영도 청년들

오늘의 양식 크루

삶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 기획

장현정 호밀밭

영도에서 함께할 친구, 이웃, 관계,

나와바리 만들기

심보라 심오한연구소

일상에서 시작하는 예술 기획,

영도 플레이스 랩

강정훈 설치·회화 작가

새로운 일, 여가,

거주를 위한 도시 실험하기

민지원 RTBP (~ 2021. 9.)

행복한 마을을 위한 진짜 커뮤니티

공화순 신선글샘

영도 주민을 위한 마을 배움터

이송미 영도희망21

심화 멘토링

2021. 7. 3. ~ 10. 7.

내 삶의 변화부터 시작하는 문화 기획

김월식 멘토

무늬만커뮤니티 디렉터

자신의 삶부터 문화적으로 바꾸기 위한 상상, 선택,
실행할 수 있는 용기

#성찰 #실천

하루 5초 쓸모 없는 수행하기

닉네임 만들고 닉네임 이면에 숨은 기획자의 정체성 읽기

문화적 삶과 기획에 관한 레퍼런스 공유

자기 언어로 기획하기

나로부터 시작하는 상상과 해석

류성호 멘토

독립 기획자

나를 돌아보고, 나를 긍정하는 문화 기획

#지역불문 #장르초월

자기소개서 공유하기

현재의 나에게 필요한 문화적 실천 구체화하기

과정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학습했는지 스스로 정리하기

일상 문화, 동네 문화 기획

우지연 멘토

(사)한국문화의집협회 이사

들어다 보고, 만나고, 묻고, 이야기하고, 시도하는 과정으로

#생활문화 #삼삼오오 실험실

자기 자신 관찰하여 관심사 찾기

기획에 접근하는 자세 '검색 말고 탐색하기'

자기 질문을 바탕으로 기획하기

피치 데이

2021. 9. 15.

실험 프로젝트 기획서 중간 발표 및 상호 아이디어 나눔

실험 프로젝트

2021. 10. ~ 11.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가고, 욕구를 실험해 보는 프로젝트 진행

실험문화기획과정 사진첩



심인석

가족 소통 및 오락 프로그램으로서 답답한 이 시기에 한자리에 모여 추억을 공유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을 해 보면서 재밌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한지연

반려동물을 키우는 제가 직접 참여자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의미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및 현실을 알려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반영난

영도 곳곳에서 느꼈던 사소한 감정들로 감정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방사빈

동네 한 바퀴는 내 삶의 공간에서 내가 의미를 부여해 오롯이 나의 시선이 담긴 모습으로 우리 동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프로젝트입니다.

배승수

20대 뮤지션 꿈 지지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의 조사를 했습니다.

송민정

영도에 있는 다양한 대상에게 편지를 쓰고, 그 속에 비친 우리의 생각들을 들여다보며 나와 내 주변을 새롭게 알아 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김백윤

영도구민의 추억 장소에서 미래를 이야기해 보고 영상으로 담아내는 프로젝트입니다.

김영찬

영도다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영도를 인터뷰하고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김예은

프리즘으로 빛의 색을 확인하듯 '나'의 여러 가지 색을 보기 위해 기획한 잡지 <프리즘>입니다.

류진필

코로나19로 소원해졌던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메뉴를 정하고 같이 요리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하는 즐거움과 추억을 공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이나 모임 등 누구와 같이 하든 상관없으나, 2인 이상의 팀으로만 출전 가능합니다. 메뉴는 무엇이든 상관 없으며, 식재료와 조리 도구는 팀별로 준비합니다. 요리가 끝난 후에는 출전 팀들이 평가자가 되어 서로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가진 후 프로젝트는 마무리됩니다.



김백운

해안 산책로를 갔었는데 옛날 그대로라서 놀랐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영도구민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담기 위해 대본 없이 진행해서 보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렀고 그 결과 영상의 재미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영도구민의 지인들도 인터뷰를 참여하러 왔다가 영도의 장소가 주는 매력에 빠져서 오히려 힐링을 하고 갔다고 하셨습니다.

김예은

모든 페이지를 스캔했는데 색이 날아가고 예쁘게 스캔되지 않았던 때. 밤을 새서 잡지를 완성하고 스캔하러 간 것인데 예상이 틀어져서 편한 마음으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류진필

다들 전문 요리사가 아니다 보니 요리에 시간 배분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시간보다 준비된 요리들이 일찍 마쳐져서 시간적으로 갭이 생겼는데 이 빈틈을 흡수하고 준비해 갔던 달고나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웹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온 아이템이어서 그런지 다들 너무 좋아해 주었고 특히,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팀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참석 팀 숫자는 예상보다 많진 않았지만, 일단 참석해 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반영난

영도문화도시센터에서 적합한 디자이너를 소개해 주셔서 머릿속의 기획을 비주얼라이징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비주얼라이징하는 내내, 감정들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김영찬

영도에서 25년째 운동을 만들고 계시는 사장님의 영도 사랑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사빈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인화한 사진을 받았을 때 번지거나 손가락으로 가려 망친 사진을 보며 슬펐습니다.

배승수

20대 젊은 뮤지션들의 공연에 대한 열정을 알게 되어 너무 부러웠어요.

송민정

한 가지 뽀기가 어렵지만, 와치홍바에서 서로의 물건에게 편지를 썼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체크 바지, 폭닥한 니트, 마스크 끈 등등 눈에 띄는 것들에게 편지를 쓰고 직접 읽어 주는 게 웃기기도 하고 알아차리기 힘들었을 서로의 디테일을 발견해 내는 게 재밌었어요. 편지 내용도 각양각색이어서 편지를 쓴 사람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자연스레 알아갈 수 있어 좋았어요 내가 가진

사물에게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주니 서로를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함이 생긴 것 같아요.

심인석

달고나 게임을 했는데 한 참여자 분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우산 모양을 성공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지연

20일 토요일 1회차 진행 중,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간이라 반려견을 데리고 나왔는데 갑자기 발을 막 핥고 절뚝거리는 거예요. 분명히 다칠 일도 없었고 피가 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강아지가 그런 행동을 보여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프로그램 중간에 강아지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왔어요. 다행히 강아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강아지만 아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김백운

사람이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김영찬

영도는 섬이고 섬 주민들은 부산과 영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예은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류진필

프로젝트 전에는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판단 짚아 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몰릴 것 같았고 다들 좋아해 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주제와 대상을 정하고 막상 시작하다 보니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홍보물 제작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참가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음에도 참가 신청은 저조했습니다. 기획자로서의 보는 관점과, 대상자로서의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으며, 멘토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좀 더 확실하고 매력적인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외부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기획을 또다시 하게 된다면 좀 더 치열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영난

좀 더 수집가의 느낌으로 영도를 생활하게 된 것. 수집이란 의미 있는 것을 모으는 일인데 일상의 편린 하나 하나에 좀 더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방사빈

우리 동네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고, 동네에 대해 애착이 더 생겼습니다.

배승수

부산의 공연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뿐 아니라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송민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못한다고 생각해서 피해 왔던 일을 해내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경험을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다른 변화는 멀게만 느껴졌던 영도를 제가 살던 곳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을 걸기 위해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너머에 있을 이야기와 사람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영도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결 끈이 생겨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보내 주신 편지를 읽고 영도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접하니깐 영도가 다채롭게 느껴져요.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심인석

리허설을 하고 나서도 준비 과정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고, 경험과 센스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지연

프로젝트 전에는 내 '프로그램이 모집이 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막상 진행해 보니 모집도 생각보다 잘 되었고, 진행도 잘 되었어요. '생각보다 내가 잘 해내는구나' 하고 기획자로 한층 멋진 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프로젝트 과정에 제목을 붙여 준다면?

김백운 말랑말랑해지는 과정

류진필 문화 기획자로 불리고 싶은
자영업자

반영난 영도 퀘렌시아

김영찬 영도는 섬이다

방사빈 등잔 밑이 아름답다

배승수 지역에 대한 작은 관심

송민정 영도에게 말 걸기

심인석 즐기세요 마음껏

한지연 빙글빙글 돌아가는 우당탕

반려인 명카데미

생태 감수성을 실천하는 '생태문화기획과정'

일상 속 생태적 관점으로 생각의 전환과 더불어
나와 주위의 변화를 살피는 생태 감수성 회복으로
생태문화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해 봅니다.

기본 과정

2021. 6. 19. ~ 7. 17.

실습형 강의

생태 문화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함께 해답을
찾아 가는 과정

비밀의 숲에서 첫 만남

김수진 리케이온 대표

영도의 역사와 정체성이 녹여 진 봉래산 탐방을 통해
문화와 자연을 함께 마주하는 시간

생태 감수성이 도시를 만났을 때

박병권 한국도시생태연구소장

생태 감수성 토크아보기로 생태 문화에 대한 생각 나누기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

임재춘 커뮤니티스튜디오104 대표

변화의 실천을 계획하고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도시와 자연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

창파 실험실 씨 아트 디렉터

사라져 가는 주변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최미나 교육 기획자

일점오도와 터놓고 나누는 실천의 자리

생태를 바라보는 문화 예술의 역할

박지선 프로듀서 그룹 도트 PD

문화 예술의 역할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

생태주의적 관점을 심는 기회

박지선 프로듀서 그룹 도트 PD

생태주의적 관점을 우리의 목소리로 이야기해 보는 시간

밥상머리에서 하는 생태문화기획

나카 나유타의 부엌 대표

음식과 함께 생태적 가치와 일상을 연결 시켜 보기

구릉지 절영해안 쓰담 달리기

김용규 오션카인드 대표

변화된 일상 속 나의 생태적 가치관 공유

심화 멘토링

2021. 7. 23. ~ 9. 10.

영도 생태 자원에 대한 리서치로 영도의 역사, 산업, 자연, 문화 자원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프로젝트 기획과 구현을 위한 오가닉 멘토·멘토링 진행

생태문화기획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답을 찾아 가는 방향성

정면 멘토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장

#공간기반프로젝트 #문화예술기획

지속 가능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명확한 표현하기

즐겁게 행복하게 프로젝트 진행하기

익숙함을 낫설게 봄으로써 생태와 예술을 삶의 일부로 바라보기

박지선

프로듀서 그룹 도트 PD

#기후변화 #문화예술기획

자기소개 및 기획자로서 질문 찾기

영도와외의 관계, 삶의 근원 등 여러 층위에서 고민해 보기

why, what, how, with, whom, to whom 거칠게 정리하기

지역과 미래를 그리는

지속 가능한 생태주의적 라이프스타일

김건우 멘토

재미난 복수

#생태적가치 #지역자원발굴

숲속 길 걸으며 나의 욕망, 나의 미래, 표현의 방법 생각하기

거울을 보며 자신과 이야기하기

리서치 및 현장 답사

생태리서치

2021. 7. 25. ~ 8. 6.

지역을 다시 들여다보고 알아 가기 위한 지역 탐방

에코 액션

2021. 10. ~ 11.

자신만의 생태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기획된 생태 프로젝트를 지역 내 구현

생태문화기획과정 사진첩





강민정

영도 내 생태 공간 공유, 쓰담, 업사이클링, 만다라 등 에코 액션 영리하게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고정미

생물처럼 변화하는 도시의 오래된 공간의 변화와 기억들을 기록했습니다.

공화순

생태 기획자의 과정을 통해 신선동 가을꽃 축제에 도전했습니다.

배하람

영도의 장소성이 깃든 물건과 생각들로 가능성을 보여 주는 전시입니다.

신숙희

게릴라 정원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수정

영도의 신선동에서 생태가 문화로 이어지는 지점을 리서치하고, '보물'이라는 키워드로 시각화하여 보물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만난 존재자, 물건, 장소를 드로잉한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였습니다.

이은희

영도의 바다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영도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를 주우며 영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살리고 환경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영도 내에서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쓰레기를 이용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의 새로운 가치를 알려 나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주영

오나바다 챌린지로 일상에서의 간단한 나의 활동으로 지구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입지 않는 옷, 사용하지 않는 식기, 전자 제품 등 각자의 집에서 연제가 사용하리라는 기대와 함께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현재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들이 누군가의 현재에는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매일 수많은 공산품과 일회용품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의 가치를 재창출하여 자원을 선순환시킴으로써 환경에 대한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나의 활동이 환경 보호라는 큰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앞으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이지현

안 쓰는 장난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해랑

의류 소비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좀 더 나은 의생활에 도전해 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추다슬

영도의 자연물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모빌 만들기 키트를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수련

영도의 숨겨진 식재료를 발굴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강민정

소규모 상담 진행 중 참여자가 아닌 지나가시던 분이 쓰레기를 주워서 같이 담아 주셨던 것이 생각나네요.

고정미

프로젝트 공간 중 영도 카페 커피 미미의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다른 종류로 2잔 시켜 먹었어요.

공화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집에 있는 귀한 그릇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동참했을 때 감동과 감격을 받았 습니다.

배하람

작품 설치를 할 때 창문에 창문 너머의 모습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디피를 해서 창문 너머의 건물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상상으로 건물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신숙희

게릴라 정원을 만들 공간을 선정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는데, 정원 탐사대와 게릴라 가드닝 팀 등이 멋진 공간을 선택해 주셔서 같이 참여하게 되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수정

제가 사는 곳은 엄광산 자락 아래에 있는 가야동인데요. 인근에 있는 동의대에 가기 위해 동의대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바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고지대에 있다는 위용을 나타내는데요. 영도의 중복 도로에 있는 신선동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 방문했던 신선동이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 하게 느껴졌어요. 거기에는 또 주민분 들이 가족처럼 반가운 손님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영도와 많은 접점이 없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곁에서 수고한다고 해 주시고 열심히 한다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 덕분에 걱정과는 달리!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은희

할로윈 상담입니다. 할로윈 상담은 원래 프로젝트 계획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SNS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도 쓰레기 줍기에 동참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아이들이 놀이처럼 할 수 있는 줍기 활동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할로윈 상담입니다. 이 상담 활동으로 인하여 생태 환경 교육이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깰 수 있게 되었고, 생태 환경 교육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놀이터 상담 활동으로 연계하게 해 준 뜻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이주영

SNS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마감 기한은 다 되어가고, 참여자가 저조해서 고민하던 중, 영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 여러분이 멋진 작품들로 챌린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지현

참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요. 멤버 중 비누 만들기 강의 경험에 있으신 분의 재능 기부로 멤버님 덕에 모여서 작은 장난감 피규어를 넣고 비누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얼까? 앞으로 어떤 모임으로 발전시킬까?' 하는 고민을 나누는 적극적인 만남이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해랑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에 대하여 생각이 많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활동 후 SNS에 자신이 느낀 점과 환경에 대한 생각을 적은 것을 보고 누군 가의 환경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점.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좋은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다슬

아이와 함께 만들고 싶다고 신청 이유에 적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실제로 아이 사진을 후기에 같이 올려 주셨어요. 모빌을 만들면서 웃고 있는 아이의 표정이 너무 해맑아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수련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 서 눈물도 나고 다양한 감흥을 느꼈 던 게 기억에 남아요.

나의 프로젝트 과정에 제목을 붙여준다면?

- 강민정** 영리하게 함께해도
- 고정미**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
- 공화순** 내가 함께하는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행복했네요
- 배하람** 일단 시작해 보면 답이 나올 거야!
- 신숙희** 우리들의 아름다운 정원 이야기
- 이수정** 보물 편람도 (영도에서 보물을 찾는 방법)
- 이은희** 나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 이주영** 어쩌면 평생 몰랐을 것들에 대한 깨우침
- 이지현** 나의 고민을 함께 풀어 갈 사람들을 만나다
- 이해랑** 우당탕 함께하는 의생활 챌린지
- 추다슬** 우리 집으로 온 영도
- 한수련** 기억과 추억 속의 맛

관점의 전환

'모두의 여행기획과정'

영도의 물리적, 심리적 여행 장벽을 탐색하고,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행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기본 과정

2021. 6. 15. ~ 7. 27.

실습형 강의

소비 지향적 관광에 대한 개념에서 문화적 태도와 다양성의 가치가 기반된 여행 관점 전환

영도에서 다시 쓰는 여행의 의미 1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관광, 여행에 대한 고정 관념 깨뜨리기

문화 다양성으로 여행 접근하기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우리는 여행에서 무엇을 깜빡하고 있을까?

영도에서 다시 쓰는 여행의 의미 2

고재열 트래블러스랩 대표

우리가 관광이 아닌 여행을 하는 이유는?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은?

부산문화다양성교육연구소

나의 영도 여행을 모두의 여행으로 상상해 보기

이동의 장벽

설재우 지역문화연구소 씨리얼

여행자를 가로막는 여행 장벽이란 무엇일까?

내가 영도와 여행자, 영도 주민과 여행자를 연결시킨다면?

불편한 영도 마주치기

자유 탐방

영도 전역을 자유 탐방하며 여행 장벽 수집해 보기

이동의 장벽

이상엽 삼달다방

이동하고 여행할 권리에 대하여

다양한 여행자의 이동·여행할 권리를 보장하려면?

가치의 장벽

정은빈 청춘여가연구소

나와 반대되는 가치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삶의 방향을 여행으로 연결하려면?

영감의 섬: 영도로 떠나 보기

써스데이 런치 클럽

영도에서 얻는 영감을 주제로 견고, 발견하고, 창작해 보기

가치의 장벽

조원영 이매진 피스

나에게는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것은?

영도에 없는 것들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지역 리서치를 기반으로 직접 <무장벽 여행>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

당연하지만 중요한 여행할 권리

이상엽 멘토

삼달다방 대표

#문화다양성 #장벽탐색

- 여행 기획에 문화적, 즐거움 요소 반영해 보기
- 모두의 여행 기획이 가능한지 영도의 이동권, 편의 시설 점검하기
- 삼달다방 프리wel 이음여행 과정 연구 및 코스 설계하기 실습

최소 도시를 통한 여행 기획

고재열 멘토

트래블러스랩 대표

#지속가능성 #여행과관광

- 무장에 여행에 관해 교감을 나누기
- 영도를 순환하는 7번 버스를 타고 각자 아이디어 구상하기
- 조제 의식에 맞춘 구체적인 코스 구현 및 여행 시뮬레이션

커뮤니티로 여행하고, 커뮤니티로 일하다

정효민 멘토

푸조와 곰솔 디렉터

#맵퍼 #커뮤니티

- '여행'을 매개로 한 오프닝 진행 및 참여자 간 관계망 형성
- 긍정적인 여행, 일상의 방식을 통해 보는 여행 기획과 거꾸로 기획하기
- 영도 관광약자 조례에 따른 '모두의 여행' 개념 기획에 반영하기

피치 데이

2021. 9. 10.

여행 프로젝트 기획서 중간 발표 및 상호 아이디어 나눔

실험 프로젝트

2021. 10. ~ 11.

여행 장벽을 고려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행 프로젝트 실험

나이 (청소년 또는 노인)

1. 미성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는 숙박 불가능?
2. 연령에 관계 없이 호칭에 대한 안내(반말 등)가 있는지?
3.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여행 장소나 문화 공간인지?
4. 교통 등 기본 인프라 시설이나 여행지 간의 이동에 제한은 없는지?
5. 이동 속도 등 배려가 있는지?
6. 여행지의 물가는 너무 비싸다면 청소년들은 소비가 어렵지 않는가?

성 소수자

1. 성 중립 편의 시설(화장실, 온천 등)이 있는지?
2. 단체 여행 시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등 기본 에티켓 교육이 있는지?
3. 해당 여행지 지역 주민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이슬람교인 (특정 피부색 포함 가능)

1. 예배 시간이 지켜지는지, 공간은 제공되는지?
2. 할랄 음식 인증이 된 식당이 있는지?
3.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의 대응 방안?
4. 히잡에 대한 제재가 없는 곳이 필요

휠체어 이용

1. 눈높이 시설(휴대용 방지턱 등), 휠체어의 눈높이에 맞게
2. 보조 관리사님, 차 이용
3. 휠체어 보관 공간 확보
4. 화장실, 방지턱

시각 장애

1. 바닥에 안내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내 점자 블록이 노란색인지? (저시력자 위한)
2. 수어, 음성 안내, 엘리베이터 점자 등
3.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의 대응 방안?
4.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5. 박물관 등 음성 안내 가능한지?
6. 안전 부분
7. 안내견이 있을 수 있는 장소, 입장 가능 여부
8. 꼭 완전히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 뿐 아니라 저시력자 등 여러 정도를 생각해야

비건

1. 비건도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2. 비건 식품 체크 리스트
3. 종교적 신념 / 비건이라 사찰 음식을 안내했는데, 기독교일수도?
4. 교통 콘텐츠 보완 (동물권 관련 이유라면 가족으로 만든 택시 탑승 불가)

청각 장애

1. 여행객이 음성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 (수어나 지화를 사용할 수 있는지)
2. 안내 표시가 문자 또는 픽토그램으로 되어 있는가?
3. 관광지에 문자 안내 해설사가 비치되어 있는가?
4. 교통 수단에 문자 안내가 있는가?
5. 수어 통역, 화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기본	상호 간 호칭, 언어, 태도에 대한 기본 에티켓 교육을 진행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여행 일정 및 장소가 특정 계층에 과집중되어있지 않는가?	<input type="checkbox"/>
	여행객의 성향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여행객의 소통 수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었는가? (외국인, 장애인 등)	<input type="checkbox"/>
진행	모집 방식이 연령에 관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input type="checkbox"/>
	여행 일정 내 연령에 따른 이용 제한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과정(숙박 등)이 선행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성소수자	성 중립 편의 시설(화장실, 온천 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여행 일정 내 성별에 따른 이용 제한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종교	일정 내 종교 활동(예배 등)에 대한 배려가 제공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식사 구성이 별도로 제공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복장에 대해 제재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장애	여행 일정 내 안내견의 동반이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수어가 가능한 여행 인솔자를 동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여행 일정 내 수어, 음성 안내, 점자 등의 가이드가 제공되는가?	<input type="checkbox"/>
	감각(시각, 청각, 촉각 등)으로 경험 가능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여행지 내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여행 일정 내 휠체어용 특장차를 동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비건	비건 여행자의 성향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었는가? (침구류, 이동 수단 등)	<input type="checkbox"/>
	비건이 이용 가능한 식사 구성이 별도로 제공되는가?	<input type="checkbox"/>







김지언

<영도 여행자들의 마니또 놀이>는 바쁜 일상 속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심리적 장벽을 갖고 있는 '20대 취준생'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영도에서 여유로운 삶의 속도를 되찾고 마니또 놀이를 통해 서로의 시선이 교차되고 확장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따뜻한 여행이에요.

원성보

2040 세대별 영도 투어의 핫스팟 소개와 감성과 감각을 전달하고 그들만의 영도 스토리텔링을 통해 여행과 추억을 전달함으로써, 누구나 알고 있는 영도 투어가 아닌 세대별로 느끼는 그들만의 영도 투어를 추억으로 공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조영아

영도의 이야기를 농인, 청각 장애인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장애 영도 카톡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이동수

영도 카톡 여행으로 카드 뉴스를 통해 여행자가 영도의 정보를 받아 전문 가이드 동행 없이 여행하는 프로젝트이고, 농인분도 카드뉴스를 통해 여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았습니다.

강유정

질문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장벽을 완화하는 물음표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부창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무장벽 감성 여행

한주미

영도마블 (야외 방 탈출 미션 게임형 여행)

김지연

살면서 처음으로 기획을 거쳐 실행까지 해 보는 거라, 매 순간이 정말 '도장 깨기'의 연속이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식물 카드를 제작하는 과정'이 기억에 남아요. 주변에 그림을 그리는 지인분께 직접 답사 때 촬영한 식물 사진과 특징을 정리한 파일을 넘겼고 그렇게 받은 그림을 글과 잘 정리해서 처음 '식물 카드'라는 걸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요청한 양식대로 하려니 인쇄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샘플도 많이 뽑아 보고 인쇄소도 열심히 둘러날락거렸는데, 결국 프로젝트 실행일 하루 전날 직접 재단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는데 저의 첫 프로젝트다 보니 후회 없이 해 보고 싶었어요. 다행히 참여자분들이 자연 식생 탐방 활동을 재밌게 즐기는 모습을 보고 많이 뿌듯했습니다!

원성보

현여울문화마을을 지나 종리해변가에서 20대와, 40대의 교차투어를 진행을 했었는데 의외로 몰랐던 영도의 핫스팟을 거치고 서로에게 추억을 선물하는 공간이 있었다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조영아

청각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강강이 유람선을 탑승할 때 노래가 나오는 부분은 표현을 하는 것이 어려워 비워두었는데, 수어 통역사 분이 노래가 나오자 춤을 추며 노래가 나오는 것을 표현하고 다른 분들도 함께 춤을 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입니다. 노래를 몸으로 표현해 주는 수어 통역사 분의 모습도 멋있게 느껴졌고, 다 함께 춤을 추는 것도 인상 깊고 새로웠습니다.

이동수

여행 타임 테이블을 만들 때 참여자분들과 식사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투어에는 맛집이지라는 생각에 유명한 맛집들을 찾아보려 했으나 거리와 시간, 접근성으로 인해 답을 내리지 못하고 아예 제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근처 밥먹기 좋은 관창은 식당을 마지막에 추천받았고, 실제로 투어를 진행하며 모두 만족하셨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전에 이번 기획 프로젝트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강유정

식사를 하는 장소의 화장실의 유무 및 상태를 확인하지 못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창성

반려동물과 함께 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케어가 되지 않아 약간의 과잉 행동에 필요 이상의 불편한 시선을 보낼 때가 기억에 남아요.

한주미

마지막 미션이 <게으른고양이> 카페에 있는 '순이'라는 고양이를 찾아서 인증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순이가 있는 곳이 랜덤이라 진행자, 미션 수행자, 스태프 할 것 없이 다들 순이를 찾는다고 카페를 돌아다녔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김지연

그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여행의 퍼즐이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서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편인데, 이번 프로젝트는 꾸준히 의식적으로 '실험을 하는 중이야'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큰 부담감 없이 표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저답게 담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향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되더라도, 이번 경험을 계기 삼아 '실험 정신'을 무장한 자유로운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성보

20대, 40대가 '내가 몰랐던 영도', '내가 알던 영도'를 서로 교감하면서 서로에게 영도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스토리텔링 마니또 투어를 통해 감각과 감성을 전달하여 영도에 대해 몰랐던 지식과 추억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아

평소 농인, 청각 장애인, 수어 통역사를 접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왔고 직접적인 경험이 처음이라 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분들의 여행 속에서 행복해하며 즐기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힐링으로 다가왔고 즐거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미래에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해 본 적이

없는데 조금이지만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동수

우선 장애인, 비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장애인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내가 장애인을 바라보던 시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농인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강유정

개인적으로 영도에 대한 관심이 더 생겼고, 모두의 여행을 통해 다양한 장벽들에 대해 알게 됐어요! 스스로의 생각의 폭이 더 넓어졌고 더 다양한 기획을 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부창성

평소 생각하였던 일의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모색하여 실행을 하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다시 복기하여 처음의 순서로 되돌아가 보았습니다. 보완, 보충을 하며 추구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를 조금씩 느끼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주미

좀 더 재미있게 여행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나의 프로젝트 과정에 제목을 붙여준다면?

김지연 나를 받아줘

원성보 그리고 느끼며 알게 되다...

영도

조영아 자세히 보았을 때 가장

정겨운 여행

이동수 우당탕 굴러가도 완주하자

강유정 또 다른 영도

부창성 내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저 하늘의 반짝이는 별들

한주미 보물찾기

문화의 시작과 끝

'아카이브기획과정'

지역의 아카이빙 요소를 발견하는 관점을 확장하고,
아카이빙 콘텐츠로 환류하여 보다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실험합니다.

온데이 클래스

2021. 7. 31. ~ 8. 28.

실습형 강의

밀도 있는 영도 아카이빙을 위한 전문가 강의,
현장 아카이빙, 멘토링 포함한 워크숍 운영

1차 워크숍

아카이브기획과정 참여자 관계 맺기

아카이브란 무엇인가?

장현정 호밀밭 출판사 대표

아카이브 어원을 살펴보고, 컬렉팅과 아카이브 차이 알기

2차 워크숍

팀 빌딩을 위한 아카이브 주제 공유 및 워크 시트 작성

문화 기획과 아카이브란 무엇인가?

전미정 메모리플랜트 공동 대표

문화 기획과 아카이브, 아카이브 콘텐츠와 아카이빙 알기

3차 워크숍

워크 시트 공유 및 숨은 이야기꾼 인터뷰 준비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아카이브란 무엇일까?

최서영 (주)더페이퍼 대표

거버넌스 형태의 아카이빙과 주민과 함께한 아카이빙
사례 나누기

4차 워크숍

팀 활동 인터뷰 경험 나누기

문화 기획과 아카이브란 무엇인가?

안대진 아카이브랩 대표

게릴라 아키비스트의 등장과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 공유

5차 워크숍

개별 아카이브 주제 정하기

관찰과 기록 그리고 '재발견'이라는 문화적 실천

안진나 홀라 대표

대구 북성로에서 진행한 아카이빙 공유, 문화 기획 실천의
단계적 접근

숨은 이야기란

2021. 8. 27.

영도에서 아직 수집되지 않은 영역을 직접 아카이빙해 보는 실습 과정

참여 인터뷰이 심점식

심화 멘토링

2021. 9. ~ 10.

아카이브 활동에 필요한 태도와 방향을 제시하는 멘토링 진행

안진나 멘토

홀라 대표

과거가 아닌 현재를 아카이브하라

- 1인 아키비스트가 진행할 수 있는 규모 설정하기
- 기획 배경과 목적 분명하게 하기, 실현 과정 리포팅
- 인터뷰이 및 독자와의 관계망 설정하기
- 지속적인 아카이빙을 위한 텍스트 설계하기

전미정 멘토

메모리플랜트 공동 대표

지역을 아카이브하는 노하우

- 아카이빙 과정의 단계별 설명 및 기록물 검색 및 접근 방식 안내
- 로컬 아카이브와 공공성에 대한 자료 공유
- 인터뷰 절차와 방법 소개

심화 프로젝트

2021. 9. ~ 10.

영도의 아카이브 요소를 발견하고 주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진행



문학에서 삶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영도 다리 잇기
김미양

「영도 다리 난간 옆에」라는 단편 소설 속 주인공의 동선을 따라 장소 기억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웹 페이지를 만들고, 온라인을 통해 해당 장소에 얹힌 사람들의 개별적인 기억을 모아 기록을 덧붙여 나가는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

지금, 영도. 진짜, 영도
박하늘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영도지만, 실질적으로 영도 거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는지를 파악해 보는 프로젝트

442: 사람 사는 이야기
양송민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가 소유한 물건을 통해 돌아보고자 한다. 일회용품이 넘쳐나고, 원하면 언제든지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사람의 손길이 닿은 오래된 물건의 가치를 재발견해 보는 프로젝트

영도의 면면(面靨)
정혜란

「영도의 면면(面靨)」 프로젝트는 최근 도시 재생과 함께 불어닥친 영도 붐(boom) 속에서 소거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고자 한다. 영도 붐을 지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미디어로서 언론에 주목하며, 해당 사건들과 삶으로 연관되어 있는 주민을 찾아 인터뷰하여 자료집으로 제작해 보는 프로젝트

김미양

영도를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을 매개로 과거 사진과 개인의 추억 등 다양한 장소 기억을 수집하고 웹 페이지에 정리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입니다.

박하늘

현 시각 영도 문화 예술인들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양송민

안녕하세요! 저의 프로젝트는 제목 그대로 '사람 사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쓰다가 고장 나면 언제든지 새것으로 구매할 수 있고, 물건의 가치가 가격으로 매겨지는 세상에서 추억이 담긴 물건을 재발견하고 싶었어요. 진행하면서 처음 기획과는 비스러진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정혜란

법정문화도시 영도,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영도의 이면에 가려진 영도의 모습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 보았습니다.

김미양

저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영도가 고향이 아니고 영도 주민도 아니지만, 제주와 닮은 모습이 많아 영도에 마음을 뺏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에 제주도에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프로젝트에 공을 들여야 할 시기에 1~2주 간의 공백이 생겼는데, 정작 '우리 할머니의 인터뷰도 해 본 적 없는 내가 무슨 아카이빙을 하겠다고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박하늘

영도 소재 대표님들의 문화 예술 발전에 대한 생각이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욕심 있던 점이 기억에 남아요. 목표가 명확했던 점 등이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의 저의 가벼운 마음을 완전히 바꿔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양송민

어르신 두 분이랑 이불 나눠 덮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한 분께 영도로 이사 오셔서 어떻게 지냈는지 어쭈뻘다가 이야기를 듣고 펍펍 울었어요. 저희 할머니랑 같은 곳에서 일하셨더라고요. 어쩌면 오가며 마주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가씨 할머니도 많이 힘드셨겠다” 하고 덤덤하게 말씀하시는데,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죄송할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세 달 전에 첫 기일을 보냈는데 살아 계셨다면 아마도 저의 첫 번째 인터뷰가 되어 주셨을 거예요.

정혜란

두 번째 인터뷰이였던 공화순 선생님을 만나러 사랑방에 갔었는데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따뜻한 공화순 선생님의 말씀과 눈빛에 그만 울어 버렸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별 의미 없는, 별 뜻 없는 선생님의 말씀에 그만 아이 같이 울었는데, 아직도 왜 울었는지, 어떤 말이 저를 울렸는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빈 동지가 되어 버린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을 위해 사랑방을 여신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별것 아닌 말에 저에게 전해졌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무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미양

저는 기획 단계에선 항상 목표가 거창한 용두사미형 인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작게라도 일단 시도해 보는 용기를 가지려고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박하늘

문화 예술 수업을 만들고 진행함이 단순한 놀이가 아닌 달혀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활력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송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진지해진 것 같아요. 제가 누리고 있는 환경 역시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요.

정혜란

그냥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적 여유나 금전적 여유가 많이 없다는 것이 크게 다가왔는데, 물론 잠도 많이 못 자고 피곤하고 힘들긴 했지만 다 하고 나니까, ‘아예 못 할 건 아니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나의 프로젝트 과정에 제목을 붙여준다면?

김미양 영도에서 36.5도의 기억을 만날 때

박하늘 영도 문화 예술의 발전성

양송민 나는 이야기를 먹고 자란다

정혜란 하면 된다

디자인으로 잇는 '디자인기획과정'

영도 문화 도시 통합 브랜드를 디자인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이해하고, 지역에 인재들이 영도 문화 도시만의
새로운 시각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디자인 과정

2021. 7. 5. ~ 7. 30.

시각 언어 이론 | 원 라인 드로잉 기획 | 타이포그래피 이론 및 실습

참여 강사

이지원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규칙적 형태를 장식적 패턴으로 디자인화하는 워크숍

윤여경 디자인 이론가·국민대학교 겸임 교수

시각 언어 이론을 통해 디자인 기본 요소인 언어적 특징과
활용을 배우는 수업

김의래 (주)쉬어짜기 대표 국민대학교 겸임 교수

이론과 실습을 통해 글꼴 선택, 글의 배치만으로 만들어지는
시각 언어를 배우는 타이포그래피 수업

협업 강사

박민지, 오현지

영도 문화 도시 브랜드 결과 공유회

2021. 7. 12.

영도 브랜드를 활용한 디자인 실습

디자인 잇기 심사

2021. 9. 8.

참여 업체 선정

디자인 잇기 마음 열기 워크숍

2021. 9. 11.

디자인 잇기 프로젝트

2021. 9. 16. ~ 11. 20.

영도 내 소상공인과 디자인 기획자 과정 수료생을 매칭하여 실제로 브랜딩을 해보는 프로젝트

참여 업체

함흥보쌈(음식점), 파티파티룸(공간 대여), 와치홈바(칵테일, 도시 민박),
카페마렌(카페), 리케이온(카페), 영도낭사랑(봉사 단체), 별별아트학원(미술 학원),
(사)대평동마을회(카페, 강강이예술마을 투어), 월이백스튜디오(독립 서점),
디에스디자인(디자인 업체)

디자인 잇기 결과 공유회

2021. 11. 20.

디자인 과정 및 결과물 보러 가기



디자인 크루 결과 보고서



디자인 잇기 결과물

디자인기획과정 사진첩



영도의 소상공인 또는 문화 단체와 디자인기획자과정 참여자가 매칭되어 실제 브랜딩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진행 내용

브랜드 워크숍 전체 기획 및 운영

소상공인 매칭한 시각 콘텐츠 제작 멘토링

참여자 와 함께 디자인 결과물 제작

2021 디자인기획자과정 참여자 총 11명

지역 내 브랜딩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문화 단체 10곳

단계	날짜	활동 내용	장소	세부 내용
로고 타입 디자인	9월 6일		zoom	
	9월 11일		파스쿠찌 영도점	구성원 소개, 디자인 취지, 콘셉트 공유
		팀별 리서치, 클라이언트 미팅	각자 장소	디자인 대상 조사, 디자인 방향 수립
	9월 18일		zoom	업체 조사 및 디자인 방향 수립 과정 공유
	9월 25일	전체 크리틱	zoom	디자인 콘셉트 피드백
		팀 작업, 클라이언트 미팅	각자 장소	로고 타입 디자인, 클라이언트 피드백
	10월 2일	전체 크리틱	zoom	디자인 크리틱
	10월 7일	전체 크리틱	zoom	디자인 크리틱
		팀 작업	각자 장소	로고 타입 디자인 마무리
	10월 16일	중간 공유회	대평마을다방	중간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팀 작업	각자 장소	애플리케이션 디자인(명함)
	10월 23일	전체 크리틱	zoom	디자인 크리틱
		팀 작업, 클라이언트 미팅	각자 장소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클라이언트 피드백
	10월 30일	전체 크리틱	zoom	디자인 크리틱
		팀 작업	각자 장소	애플리케이션 디자인(목업 시안)
	11월 6일	전체 크리틱	zoom	디자인 크리틱
		팀 작업	각자 장소	최종 수정, 보완
	11월 12일	전체 크리틱	zoom	디자인 최종 크리틱
	11월 20일	결과 공유회	POT13	최종 성과물 공유 및 소감 나누기

김혜원

영도의 문화 단체 혹은 소상공인 분들과 매칭하여 영도 브랜딩의 시각 콘텐츠를 확장시키고 활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 팀은 세 명의 디자이너가 함께 강강이 대평마을과 별별아트센터를 담당하여 작업하였는데요. 제가 주로 담당했었던 대평마을다방은 기존의 로고는 유지하길 원하셨었고, 안내 센터, 공작소, 마을 다방 각각의 느낌은 살리되 하나로 어울려 사용해도 문제 없는 확장성을 메인으로 두고 개발했습니다. 마을 다방의 그래픽은 커피 테이블, 차를 마시는 사람들, 선박과 강강이 아지매를 그래픽 심볼로 선택하였고 편안하고 즐거운 카페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자유로운 라인 드로잉의 느낌을 살려 작업하였습니다.

송혜진

세 명의 팀원이 별별다방이라는 팀을 구성하여 별별아트학원, 강강이마을다방, 강강이안내센터라는 세 업체의 브랜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소원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하은

‘파티파티룸’이라는 게스트 하우스에 어울리는 원 라인 드로잉을 그리고, 그 원 라인 드로잉을 활용하여 로고와 명함, 간판 등 다양한 응용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임현진

카페마렌, 암암복스, 함흥보쌈, 와치홈바 총 4가지 업체를 영도 디자인 규칙에 맞춰 리디자인 해 보았습니다.

전영민

디자인 기획자 과정을 진행한 영디자인 팀입니다. 영도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가게들의 브랜딩을 진행하였습니다. 가게 사장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각각의 가게들에 대해 듣고, 원하시는 방향을 함께 의논하며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로고와 명함, 간판, 패키지 등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정하영

영도 디자인 한선잇기 규칙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브랜드를 디자인했습니다! 원 라인 드로잉으로 귀여운 덕삼이의 모습을 그려 브랜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김혜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일 당황했던 순간은 첫날 제가 팀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같아요.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움에 막막했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작업을 진행하면서 걱정만큼의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창작물을 만들어 낸다는 게 쉽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시간에 많이 쫓겨 마음이 불안했지만, 천사 같은 팀원분들을 만나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진행했고, 대표님들께서도 결과물을 너무 만족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송혜진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패널 파일을 제출했던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제출이었는데, 학교에서 오전 수업을 하고 오후 1시에 마친 후 부랴부랴 패널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우스를 집에 놔두고 와서 PC방에서 마우스를 빌려서 구석에서 몰래 패널을 수정했고, 심지어 노트북 배터리도 얼마 없어서 조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오후 2시 55분 쯤에 제출해서 한숨 돌리고 첫 끼니를 먹고 나니 부재중 전화와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일러스트 파일 수정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오후 4시 반에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진땀을 빼는 작업이었기에 기억에 납니다.

이소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브랜드 결과 공유회가 기억에 남아요. 열심히 디자인한 결과물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 나눌 때 과정들도 생각이 나며 즐거웠어요!

이하은

로고를 만들면서 사장님과 콘셉트에 대해 방향을 다시 조절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작업물을 만드는 것이 처음이라 다시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께서 함께 만드는 작업물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아이디어도 주시면서 도와 주시는 것을 보고 저도 더 좋은 작업물을 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팀원분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팀과 함께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임현진

디자인 잇기 최종 공유회 때 담당한 업체 분들이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하시고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을 때 감동했습니다!

전영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가게 사장님과 첫 미팅을 할 때입니다. 저녁 시간이었고 가게의 분위기를 좀 더 느끼고 싶어 가게를 직접 방문하여 미팅을 진행했었는데, 사장님께서 정말 맛있는 술과 안주를 대접해 주셨고, 그걸 먹으며 즐겁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정하영

마지막 제출하기 전전날 다 같이 늦게까지 마무리하고 수정한다고 연락했던 일이 기억나요. 열심히 불태운다는 느낌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황수정

팀별로 활동을 하였는데 제가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퀄리티 부분 때문에 팀원들을 조금 못살게 굴었는데 더 따뜻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마음에 남아요.

김혜원

저는 여태껏 혼자서 하는 작업이 기본이라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익숙했었는데요. 그 때문에 많은 한계에 부딪혀 힘든 일이 많았었어요. 팀으로 하는 작업이 새로워서 즐겁기도 하고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부탁할 때 마음의 짐이 조금 줄어든 느낌이에요. 100에서 한.. 97정도? 아니.. 96?

송혜진

팀원 중 저만 학생이었고 두 분은 실무자였기 때문에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도 이번에 성장통을 겪었으니 다음번에 또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두 분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배우는 단계에 있는 팀원을 이끌어 주는 리더이자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이소원

전보다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실무적인 디자인을 겪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하은

너무너무 변화가 많은 것 같은데 요!!! ㅎㅎ 일단 제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경험하니,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부딪쳐 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이전에는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이었는데 실제로 밖에 나와 직접 일하고 경력도 많으신 디자이너분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경험 자체가 어떤 벽을 넘어서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느낌!! 진짜 디자이너로서의 마음자정이 생긴 것 같아요. 디자이너로서 저의 위치도 돌아보게 되고 정말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일에 대한 막연함이 컸는데 이제는 막연함을 넘어서서 내가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으로 들어선 것 같아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설레고 소중해진 것 같습니다!!

임현진

디자인 능력이 매우 향상되었고 많은 사람과 협력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작업했을 땐 알지 못했던 소속감을 느꼈고 서로의 디자인을 공유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저만의 색깔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영민

이번 디자인기획자과정을 통해 소상공인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원하는 방향을 함께 맞춰 가며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영

영도에 대한 감정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땅에서 떨어져 있어서 멀다고 느꼈던 곳이 친숙해지고 가까워지고 숨은 빛나는 곳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친밀감이 들었습니다.

황수정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나의 프로젝트 과정에 제목을 붙여준다면?

김혜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혜진 혜진과 영도

이소원 영도, 실험프로젝트로 잇다

이하은 부화하기! 이 프로젝트 과정이
저한테는 좁은 알에서
나오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임현진 네, 영도에서 합니다

전영민 이제 시작입니다

정하영 하영도 영도

황수정 멀고도 가까운

2020년 졸업생 후속 프로젝트

‘기획자의 밤’



기간 | 2021. 9. ~ 2022. 1.

참여 인원 | 43명

협업 기획자 | 김미양 졸업생 (기억과 추억 사이 대표)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시	내용
스포일러 데이	9. 3. (금)	졸업생 기획자의 밤 의견 나눔
다리 건너 동창회	10. 22. (금)	수료 후 9개월간 변화된 일상과 시도해 본 프로젝트를 리포트 해보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수료생 간 교류의 폭을 넓히는 네트워킹 자리
기획자와 밤 소풍	11. 20. (토)	현장의 선배 또는 나보다 한발 먼저 시작한 기획자와의 만남을 통해 다음 스텝을 위한 조언과 앞으로의 기획 활동을 연결해 줄 협력자를 찾는 시간
	11. 26. (금)	
	12. 3. (금)	
방과 후 특별 활동	12. 8. (수) ~ 12. 31. (금)	동창회, 밤 소풍에서 만난 동료들 간 기획 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한 개별 커뮤니티 모임 운영
결과 공유회	'22. 1. 20. (목)	특별 활동 결과 공유 및 소감 나눔

2020년 ‘영도가 문화학교’ 졸업생들이 모여 작당 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료 후 어떤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기획 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동료들과 다양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1부: “어떻게 지냈는교(橋)?”

각자가 도전했던 기획과 경험을 공유하고, 졸업 후 어떤 변화된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그간 못 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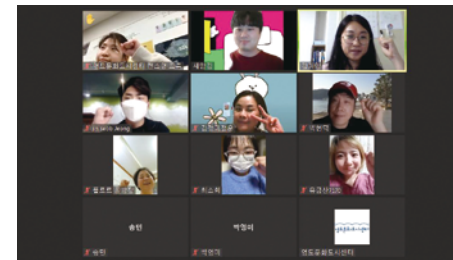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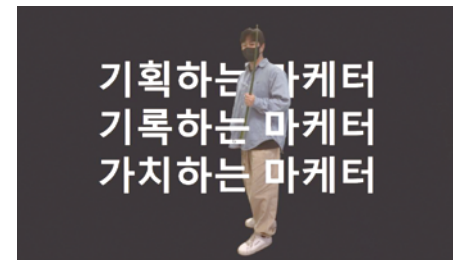
2부: “뭐하는 사람인교(橋)?”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관심사를 자유롭게 정리한 후 각자가 원하는 활동의 결과를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보는 미니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효과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2회차: 사이드 프로젝트와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사이드 프로젝트로 자신만의 기획을 해 나가고 있는 암키와 함께 ‘노션’을 활용한 나만의 포트폴리오 정리법과 사이드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일정 관리 팁을 배워 보았습니다.



3회차: 리서치 예술 기획

리서치 예술 기획 분야의 선배 기획자 창파님과 함께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관찰하는지, 또 그것을 토대로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해 온 경험을 나눠 주셨습니다. 또 각자 고민하고 필요한 조언을 들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회차: 어반 스케치

어반 스케치 분야의 선배 박재란 님과 함께 지역을 기록하는 새로운 방식 ‘어반 스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와 사용법을 배워 보고,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어반 트래블러 팀

팀장: 정진섭 (2020년 축제 기획자과정 졸업생)

참여 인원: 5명

모임 내용

부산 혹은 영도를 배경으로 지역 관련 셀프 히스토리가 있는 어반 스케치를 제작, 공유하여 '위스토리 부산 어반 스케치 맵'을 완성해 보는 모임 (※2022년에 서로가 픽한 공간들을 넘나들며 로컬 스토리텔링 콘텐츠 형성하는 것이 목표) 어반 스케치 활동 기획서 작성 및 전문가 특강, 기획 회의 등 진행

활동 의견

팀원들 간의 협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스토리를 담은 로컬 콘텐츠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오프라인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장소 대관, 사후 관리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본 특별 활동의 연장선에서 2022년에 해 보고 싶은 것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년도 공공 예술 분야 준비 연구 단계 지원 사업 신청, 위스토리 어반 스케치맵을 제작하여 관련 장소에 배포하고 싶습니다.

에코 라이프 꿈꾸는 0° 인 팀

팀장: 김정미 (2020년 생태문화기획자과정 졸업생)

참여 인원: 2명

모임 내용

영도 주민들과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위한 업사이클링 예술 작품을 함께 만들고 전시 기획도 해 보는 모임. 기후 위기를 알리고 행동을 촉구하는 전시 진행

활동 의견

영도가 생태 전환 도시로 탈바꿈하길 바라며, 같은 뜻을 가진 동료와 함께할 수 있어서 뜻 깊었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가치를 앞으로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 활동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활동의 연장선으로 '기후 위기를 알리는 전시, 체험 프로젝트, 영도 탄소 중립 에코 라이프 페어'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기획으로 기획 잡기 팀

팀장: 양송민 (2020년 전환도시문화기획자과정 졸업생)

참여 인원: 5명

모임 내용

자신의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현재 구상 중인 기획을 공유하며 구체화시키는 모임. 내년 영도문화도시센터와 함께할 프로젝트를 준비하거나, 기타 문화 활동과 관련된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뜻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협업하는 스터디 모임. 관심사 공유 및 모의 기획서 작성, 참여자 간 상호 피드백 진행

활동 의견

영도문화도시센터 추진 사업 중에서 개별 프로젝트 외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거리 두기로 모임이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면서 예산 사용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스터디 후 전문가 분들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더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협업자를 만나 공동 프로젝트 기획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졸업생 관심사

- 1위 영도에 관한 것 무엇이든
- 2위 환경, 생태, 디자인
- 3위 사진, 회화, 아카이빙, 문화 실험

참여자 후기

"같은 과정을 수료한 동기들의 근황이 궁금했는데 동창회가 생겨 기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커뮤니티 형성을 기대하며, 동창회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모임이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것

"모임에 열정을 가지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자기만의 임팩트, 어떤 것에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

"작년 '영도가 문화학교'를 통해 도움닫기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얼마만큼 나아갈 수 있는지 스스로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저의 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해 직접 관련된 기관을 발 벗고 찾아가고, 정보를 찾아 나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을 해보고 싶나요?

"문화 예술로도 먹고살 수 있도록 우리끼리 재테크 동아리를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싶습니다. 지역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공유하면서 같이 공감대를 쌓는 일을 먼저 해 보고 싶어요."



3장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

변화와 성장에 대한 랜선 인터뷰

숨 가쁘게 달려온 영도 기획자의 집. 졸업생들에게 영도 기획자의 집은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한숨 돌리고 기획자의 집에서 시간을 돌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타입폼을 통해 랜선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영도 기획자의 집 졸업생이 들려주는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실험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과 후 어떤 점에서 변화를 느꼈나요?

김지연(여행) “그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여행의 퍼즐이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서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편인데, 이번 프로젝트는 꾸준히 **의식적으로 ‘실험을 하는 중이야’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큰 부담감 없이 표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저답게 담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향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되더라도, 이번 경험을 계기 삼아 ‘실험 정신’을 무장한 자유로운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승민(아카이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진지해진 것 같아요. 제가 누리고 있는 환경 역시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이수정(생태) “프로젝트 전에는 실행하는 데 급급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잘 마무리만 짓자고 생각하면서 계속 긴장이 되고 걱정이 앞서곤 했는데요. 막상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신선동 도래섬 사랑방을 중심으로 교류했던 주민분들과 공화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사랑방을 통해서 신선동과 영도를 이해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곳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표가 될 뻔한 이야기가 쉼표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한지연(실험) “프로젝트 전에는 ‘내 프로그램이 모집이 될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막상 진행해 보니 모집도 **생각보다 잘 되었고, 진행도 잘 있었어요.** ‘생각보다 내가 잘 해내는구나’ 하고 기획자로 **한층 멋진 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양(아카이브) “저는 기획 단계에선 항상 목표가 거창한 용두사미형 인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작게라도 일단 시도해 보는 용기**를 가지려고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이주영(생태) “생태문화기획과정 전에는 환경 보호라는 큰 가치보다는 성공, 명예, 부의 증식 같은 속세적인 가치에만 중점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환경 보호는 남의 일이고 뒷전이었습니디. 하지만 기획과정 중 많은 강사님의 생태 환경에 대한 여러 관점에 대한 수업을 들으며 반성했고,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이번에 환경 보호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기획자인 **나부터 사회가 가진 환경 문제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 보호를 실천해야겠다는 의식**을 가지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인식 개선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디자인) “저는 여태껏 혼자서 하는 작업이 기본이라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익숙했었는데요. 그 때문에 많은 한계에 부딪혀 힘든 일이 많았었어요. 팀으로 하는 작업이 새로워서 즐겁기도 하지만, 질문을 한다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부닥할 때 마음의 짐이 조금 줄어든 느낌**이에요.”

송민정(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못한다고 생각해서 피해 왔던 일을 해내고 두려움을 뛰어 넘는 경험을 했던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다른 변화는 멀게만 느껴졌던 영도를 제가 살던 곳보다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말을 걸기 위해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너머에 있을 이야기와 사람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영도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결 끈이 생겨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보내 주신 편지를 읽고 영도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접하니까 영도가 다채롭게 느껴져요.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반영난(실험) “지역과,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에 관심이 생겼어요.”

기획자의 집을 하면서 새로운 움직임 또는 시도해 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황수정(디자이너)

“마음에 맞는 디자이너 친구를 만났어요.”

정하영(디자이너)

“이번 프로젝트로 생긴 인연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좋은 경험이고 좋은 친구들이 생긴 기분입니다.”

이동수(여행)

“한 지역을 유심히 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매번 시간이 없어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주 가는 반경으로만 돌아다녔지만, 기획자의 집에 참여하며 생활 반경이 아닌 새로운 지역인 ‘영도’를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직접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걸었다면, 요즘은 건물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영도의 강강이마을을 조사하며 옛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건물들을 알게 되면서 ‘내 주변에는 그런 흔적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길을 걸을 때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방사빈(실험)

“기획자의 집에 참여한 것 자체가 내게는 새로운 움직임이었고, 이 움직임이 어디까지 나를 데려갈지 궁금합니다.”



심인석(실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책 한 권 읽어 보려 하고 있어요!”

임현진(디자이너)

“다양한 강연, 대외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영도가 이어 준 기회로 만난 사람들과 소통하며 제 활동 범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한수련(생태)

“더 많은 기획이 남았다는 생각, 더 재미난 것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움직여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하은(디자이너)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시도들이 생겼어요. 배우면서 알게 되는 새로운 것들이 저한테는 아이디어로 다가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시도도 안 해 봤을 공모전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려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이지현(생태)

“함께하는 분들의 이름을 외우고 안부를 물으려 노력했습니다.”

이해랑(생태)

“나 혼자만 하던 것을 다른 사람과 시도해 보았다는 것. 대중적이지 않은 것도 어디엔가는 나와 같이 열심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류진필(실험) “나의 한계를 알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아가고, 인정할 때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한계가 나의 노력이나 공부로 극복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강유정(여행) “내 생각, 행동, 모습들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이하은(디자이너) “한계에 부딪히면서 힘들었던 순간들과 그 순간을 잘 넘어서 즐거움이 되었던 과정이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힘든 순간들을 그냥 버티자고 생각하며 지냈던 시간도 있는데 이제는 그 뒤에 성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른 분들의 ‘성장’도 궁금해지네요.”

방사빈(실험) “성장은 어제보다 더 나은 생각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나만의 시선이 생길 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송혜진(디자이너) “내 주제를 아는 것. 그게 참 아프지만 그것 또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야할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심인석(실험) “무슨 일이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속상함이나 마음속으로 지친 것을 걸로 티내지 않고 내색하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을 다시 잡을 때 성장했다고 느껴 집니다.”

전영민(디자이너) “이것저것 재지 않고 도전할 때, 직접 부딪쳐 보면서 하나 하나 배워 갈 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한지연(실험) “일단 무엇이든 간에 부딪쳐 봐야지 성장하는 것 같아요. 해 보지 않고 성장을 바란다면 너무 거저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간에 해 보며 어떻게든 성장합니다!”

이주영(생태) “매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속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성장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소원(디자이너) “성장이란 내 안의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원(디자이너) “같은 이유로 힘들어 하지 않을 때, 경험이 쌓여서 나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때 성장함을 느껴요.”

이지현(생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때’ 성장한다고 느꼈어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고 묵묵히 나아갈 때 가장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배하람(생태) “성장이란 마음 설레는 일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고요. 성장 과정은 불안에 요동치지만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승민(아카이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인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꼈지만 저는 사람들 속에서 많이 배우고, 힘을 얻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늘 즐겁게 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심인석(실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김백운(실험) “자신감과 용기”

추다슬(생태) “많은 도전을 통한 경험 쌓기!”

이동수(여행) “느끼고 싶지 않은 불안함, 초조함, 실패, 실수, 응원, 친구, 가족, 잡, 식사, 스트레스, 스트레스 해소, 약간의 술, 자신감”

전영민(디자이너) “도전, 다양한 시도와 경험, 나를 믿는 것,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

김미양(아카이브) “사람, 마감, 실패해도 괜찮지만 포기하는 안 된다는 생각”

반영난(실험) “오픈 마인드, 반강제라도 계속 관계 맺기가 필요해요.”

이소원(디자이너)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송민정(실험)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닫혀 있을 수 있던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내 생각과 상태를 진단 할 수 있게 해주는 꾸준한 글쓰기도요.”

신숙희(생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멘토!”

이지현(생태) “더 많은 도전과 실패겠지요. 실패보다 도전이 조금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고정미(생태) “결심하는 용기”

이하은(디자이너) “피드백! 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면 성장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피드백 받을 때 늘 즐겁진 않지만 그것보다 저한테는 피드백이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꼭 필요하고 저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는 수단이라 소중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들도 엄청 많았어요.”



부창성(여행) “나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높은 자존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공부하고, 사색하고, 많은 것에 공감하도록 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지현(생태) “뜻을 가진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기획자(사람)라고 생각하나요?

류진필(실험) “저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기획자입니다. 일단, 제가 재미있고 보람 있어야 합니다. 내가 깔아 놓은 판에, 내가 만든 틀 속에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걸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충족시켜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참여자들뿐 아니라 나도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부창성(여행) “다름을 이해하는 기획자입니다.”

이하은(디자이너) “나는 전등 같은 기획자입니다. 방에 불을 켜면 사물마다 고유한 색을 나타내 보이게 되듯이 저도 사람마다 가진 빛깔들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디자인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혜란(아카이브) “나는 숨겨진 목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혜랑(생태) “사람들에게 무언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는 사람!”

고정미(생태) “저는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고 만드는 기획자입니다.”

한주미(여행) “저는 즐거운 기획자입니다. 내가 즐겁게 기획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즐거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즐거울 순 없지만 저랑 성향이 맞는 사람은 분명 즐거울 거예요!”

배하람(생태) “저는 사람들의 능력을 기다릴 줄 아는 기획자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나오는 시간이 다르므로 무조건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정(실험) “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선을 보태는 기획자입니다. 어떤 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랜드마크, 명소 같은 것이 아니라 그곳을 바라보는 시선들의 축적이라 믿는다. 따뜻하고 훌륭한 시선들은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이번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것들을 지켜 내는 기획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영난(실험) “저는 나로부터 확장해 가는 기획자입니다.”

강민정(생태) “저는 시간을 선물하는 기획자입니다.”

임현진(디자이너) “저는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버팀목이자 믿을 수 있는 동료로 남겨지고 싶어요!”

심인석(실험) “영성한 초짜 기획자!”

이수정(생태) “저는 스며드는 기획자입니다. 대단하고 강렬한 프로젝트를 꿈꾸기도 했지만 그런 것에는 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함을 가지고 은근하게 스며들어서 어느샌가 나의 색을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김지연(여행)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느낌표(!)를 찍는 이정표 같은 기획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도 저만의 고유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열심히 조물거려서 세상에 내놓았을 때, 최소한 한 명이라도 멋지(!!)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삶의 방향성을 인도하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영도 기획자의 집을 통해 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류진필(실협) “세상에 쉬운 건 없으나, 못할 것도 없다!”

김지연(여행) “가장 본인다운 모습을 꺼내도 괜찮아요”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 참여하는 내내 많은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고 곁에 든든한 지원자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기획자의 집은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승수(실협)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양송민(아카이브) “내가 어떤 기획을 내놓더라도, 설사 그것이 실현 불가능할지라도 **진심으로 같이 고민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어요.”

이수정(생태) “작은 마을에 이사 와서 살게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라고 하면 담당 선생님과 참여자분들이 ‘이런 건 어때요?’ 하고 알려 주시기도 하고 안부도 물어봐 주셔서 **이웃의 정**을 느끼기도 했어요. 집으로 가는 귀소 본능이 있듯이 어느새 발걸음이 향해 있는 곳이 기획자의 집이더라고요. 저는 생태 마을에서 살고 있었네요!”

심인석(실협) “실패해도 좋으니깐 한번 해 봐라”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한지연(실협) “모두가 다 할 수 있다고 외쳐 주어서 너무 고마웠다. 참여자 모집이 하나도 안 될 줄 알았는데 걱정 말고 모집이 될 거라고도 해주셨고, 열렁동땅한 기획인 것 같았는데 재미있어 보인다고 참여해 주고 **관심**을 가져 준 그 자체가 너무 인상적이었다.”

강민정(생태) “할 수 있습니다. 좋아 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들이요!”

김혜원(디자인) “가능성의 **통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과 만나고 디자인을 적용해 볼 기회를 얻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송민정(실협) “조금 더 나다워도 된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잔뜩 받은 기분입니다. 기획자의 과정을 하면서 자기 검열적인 생각들을 많이 내려놓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를 나로 만드는 게 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랑(생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영감과 **기반**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용기와 응원을 받아서 나도 무언가를 해 보고 싶고 해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따뜻하고 감사했습니다.”

이하은(디자인)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응원**해 주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하는 디자이너라는 것을 보여 줄 수도 없었지만, 기회를 주었고 또 그 과정들 안에서 언제나 뒤에서 응원해주시는 느낌을 받으며 과정을 해내었습니다. 기획자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공화순(생태) “최고가 아닌데 **최고**라고 여겨 주시는 **긍정의 힘**”



수료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영도는 나에게 어떤 곳으로 느껴지나요?

류진필(실협) “나에게 이전의 영도는 그냥 밥벌이의 대상이었으나, 이후의 영도는 같이 밥 먹는 대상이다.”

강유정(여행) “전에는 그냥 내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궁금하고 찾아볼게 많은 나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황수정(디자인) “멀어지려고 해도 멀어질 수 없는 마력의 힘이 있는 곳 같습니다.”

정하영(디자인) “숨겨둔 비밀 기지”

김예은(실협) “사람 내음 나는 동네”

양송민(아카이브) “나의 자랑, 나의 고향. 누가 영도에 대해 말해 보라고 하면 밤새워 떠들 수 있어요.”

김지연(여행) “처음 기획자의 집을 시작했을 때, 영도는 제게 ‘외부인’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섬이었고 좋아하는 마음과 더불어 두터운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갈 때마다 날씨가 늘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답사를 구석구석 정말 많이 다녔고 틈만 나면 놀러 갔던 것 같아요. 어느샌가 친구들이 저를 ‘영도 모험가’로 저장해 놓더라고요. 이제는 지도를 굳이 보지 않아도 웬만한 곳은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고 저에게 ‘놀이터’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배승수(실협) “많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소”

임현진(디자인) “영도는 결코 작지 않다. 수료 전에는 영도를 관광지로 여겼습니다. 기획자의 집을 통해 영도에는 멋지고 다양한 기획자들이 거주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료 후에 느낀 영도는 창의적이고 무한한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 같습니다!”

이주영(생태) “수료 전에는 단순한 거주지, 언젠가는 떠나야 될 곳이었지만, 수료 후 영도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여러 곳을 탐험하면서, 제2의 고향 같은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생 정착하고 살려고 합니다.”

이소원(디자인) “기획자의 집을 한 이후로 영도는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깊은 역사, 그리고 볼거리도 많은 영도를 친구들에게 알려 주고 싶어요.”

송민정(실협) “수료 전에는 이름만 알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제가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영도에서 따뜻한 기억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처럼 느껴져요.”

정혜란(아카이브) “영도는 발견되지 못한 이야기가 숨겨진 곳. 지혜로운 주민들이 숨어 있는 곳.”

반영난(실협) “전: 내가 체류하는 곳, 후: 내가 살아가는 곳”

박하늘(아카이브) “독심이 있는 곳. 영도만의 문화가 있는 곳.”



4장 우리들의 다음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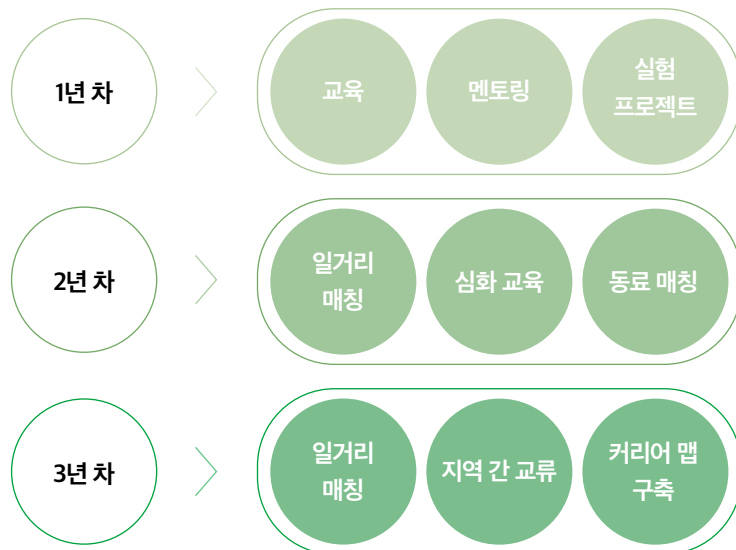
- 넥스트 영도 기획자의 집
- 스스로에게 보내는 행운 편지
- 2021년을 돌아보며, 담당 크루들의 한마디
- 달는 글 “나다움을 발견하는 즐거움”
- 함께해 주신 분들



“창의 인재가 모이고 성장하며 동네를 바꿉니다.”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영도의 다양한 자원과 도시 의제를 문화적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생계 또는 비생계 활동을 추구하는 기획자들을 교육하고 꾸준히 경력을 관리합니다.

영도 기획자의 집 운영 방식



기획자 학교

진입 장벽은 낮추고 문화 기획에 흥미를 느끼고,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과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커리어 맵

졸업생 맞춤형 일거리, 동료 연결을 통해 다양한 성장 루트를 개발합니다.

기획자 레지던시

기존 예술가 레지던시 방식이 아니라 영도에 머물며 공간, 동료, 기회를 갖고 싶은 문화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단·장기 레지던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합니다.

동남권 문화 인재 협의체

동남권 지역 문화 도시들과 문화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사업과 교류 촉진을 도모합니다.

스스로에게 보내는 행운 편지

갈팡질팡할 때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네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기. 실령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서 실패하더라도, 비난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 보기. 힘이 들 땐 “인생 뭐 있나”라고 되뇌어 보자.

역경을 딛고 별을 향하여

용기 잘 내었고, 잘했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면 될 것 같아!

나이 들어 감에 좁아지지 말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은 항상 청년의 그 시절에 함께하고 그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내가 되길

포기 안 해 다행이다. 욕봤다

한 가지 특출한 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찢꺼거리면서 살면 안 된다던 선생님의 말, 실패할 때마다 생각나서 엄청 괴로웠었지? 지금은 어때? 내가 찢꺼 괴로웠던 얇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강이 되었어.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다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살자!

앞으로 넘어질 일도 많고 갈 길도 멀지만 언제나 가는 길마다 색을 밝히며 걸어가길!! 앞으로의 일들이 너무 기대된다! 응원해

거 봐, 잘할 수 있잖아!

끝이 날까 싶었던 기획자의 집 과정이 끝을 보인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무언가 하나의 결실을 만들어 낸 너에게 응원을 보낸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많이 성장한 너가 되었기를 바란다.

진짜 힘들었다. 그래도 이겨냈네.

매일 즐거울 수는 없지만 즐거운 일은 매일 있어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생각을 말하고, 넓히며 모든 일을 시도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도 언젠가는 나 스스로 만족하는 날이 올 거야

또 다른 직업인 문화 기획자로서의 삶을 즐기길

잘하고 있어. 참된 길을 가고 싶은 그 마음만 있다면 길을 잃지 않을 거야.

드디어 마지막이다! 동시에 이제 시작이다! 늘 '자기에 대한 열정'을 겸손히 다하며 의연한 태도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너는 '숲' 같은 사람이야! 내가 사라지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는, 모자와 배낭을 챙겨 들고 숲을 찾아가.

2021년을 돌아보며, 담당 크루들의 한마디

전소영 크루

작년 영도 기획자의 집을 통해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나를 알아 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고, 해매는 순간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웠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또 다른 여정에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넥스트 영도 기획자의 집에서 곧 만나요!

유지현 크루

프로젝트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모두의여행기획과정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진행해 주신 참여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여행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트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멘토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함께 모두의여행기획과정을 진행하면서 ‘여행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만 즐거운 여행보다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행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도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모두가 영도를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명 크루

눈으로 드러나는 환경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 못지않게, 문화 도시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라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동료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또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 나갈 파트너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영도 기획자의 집’에서 여러분을 만났고, 지역의 역사와 도시의 문화 그리고 생태적 환경의 접점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과정이어서 행복했습니다. 한 해 동안 다섯 가지 과정에서 담당 크루들을 지지해 주시고 함께 달려와 주신 기획자의 집 참여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설 크루

기획은 형체가 없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런 기획을 영도 기획자의 집의 과정을 통해 영도만의 스타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참여자들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성장했던 소중한 시간을 잊지 않고, 재미난 기획들로 계속해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박지현 크루

아카이브 기획은 기록이 없습니다. 쉬웠던 적이 없고 늘 어렵죠. 그렇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셨던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아카이브기획자’가 어떤 기억으로, 경험으로 남아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좋은 기억은 아니었더라도, 아카이브 자체에 대한 기억은 가치 있었다고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카이브로 토론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종종 뵙겠습니다!

“나만움을 발견하는 즐거움”

6개월간 영도 기획자의 집을 통해 곳곳에 흩어져 있던 보석 같은 존재들이 영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고 활동했습니다.

그 과정에 함께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5개 과정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애정과 노고로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도 기획자의 집은 단순히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이 가지는 의미처럼 기획자로서 첫출발을 시작하는 곳이자 함께할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또 기획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저마다 쌓아온 경험도, 생활 배경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과정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으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문화적 취향’을 이미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신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서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기를 꿈꿔 봅니다. ‘영도’라는 도시야말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환경과 요소들이 숨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과 자료집에는 졸업생 52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실험하고, 움직여 보면서 느낀 변화와 성장에 대한 과정을 담았습니다. 영도 기획자의 집을 통해 나만의 속도로, 나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도시에서 지내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떤 형태로 자기 일과 삶에 결합하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소중한 당신의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영도 기획자의 집 유닛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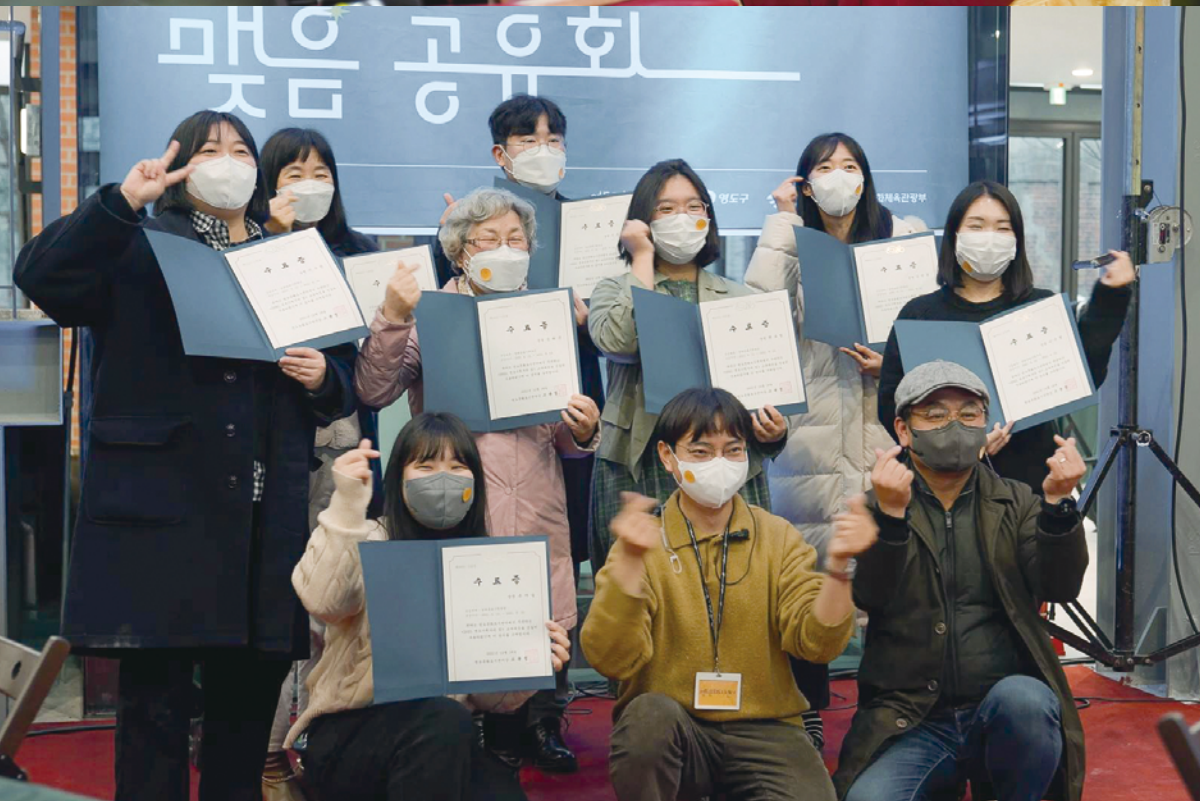
함께해 주신 분들

참여자

실험문화기획	생태문화기획	모두의여행기획	아카이브기획	디자인기획
고건영	고정미	강유정	권하형	구혜원
고명진	공화순	김지연	김미양	김혜원
김백윤	이주영	부창성	박하늘	민유리
김영찬	추다슬	원성보	양송민	박규비
김예은	이채은	이동수	이선미	박종현
류진필	이수정	조영아	오동건	서정화
반영난	이승은	한주미	전아람	손주완
방사빈	이지현		정혜란	송혜진
배승수	이지현		주하순	이소원
송민정	신숙희			이하은
심인석	이해람			임현진
이창원	배하람			전영민
한지연	강민정			정지원
현종국	최유림			정하영
	이은희			최미선
	한수련			황수정

멘토 및 협력 기획자

김월식 무늬만커뮤니티 디렉터	와우디랩	정은빈 청춘여가연구소
류성호 독립 기획자	장현정 호밀밭 대표	써스데이 런치 클럽
우지연 (사)한국문화의집협회 이사	강정훈 작가	조원영 이매진 피스
정면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장	민지원 기획자	최서영 (주)더페이스퍼 대표
박지선 프로듀서 그룹 도트 PD	월야백 스튜디오	안대진 아카이브랩 대표
김건우 재미난복수	이송미 영도희망21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공동 대표
이상원 삼달다방 대표	공화순 신선글샘	이지안 청년문화로협동조합
고재열 트래블러스랩 대표	김수진 리케이온 대표	정하연 청년문화로협동조합
정효민 푸조와 공술 디렉터	박병권 한국도시생태연구소장	한지선 라이스케이팅링
안진나 홀라 대표	임재춘 커뮤니티스튜디오104 대표	한수련 라이스케이팅링
전미정 메모리플랜트 공동 대표	창파 실험실 씨 아트 디렉터	정육곡 051FM
이지원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최미나 교육 기획자	박민지 디자이너
윤여경 디자인 이론가 국민대 겸임 교수	나카 나유타의 부엌 대표	오현지 디자이너
김의래 (주)썬아찌기 대표 국민대 겸임 교수	김용규 오션카인드 대표	
서현선 진저티프로젝트 이사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최선영 유구리 최실장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조정훈 우리동네사람들 대표	부산문화다양성교육연구소	
천영환 퓨처스리빙랩 대표	설재우 지역문화연구소 씨리얼	









2021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

함께 성장하고 이어지는 영도 기획자의 집

발 행 인 영도문화도시센터 고윤정

발 행 처 영도문화도시센터

발 행 일 2022. 2.

총 괄 기 획 영도문화도시센터

디자인·편집 순간과영원

영도문화도시센터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로 27번길 8-8, 2층
2F, 8-8, Daepyeong-ro 27beon-gil, Yeongdo-gu, Busan, Korea

홈 페이지 www.ydct.or.kr

문 의 051-418-1863

© 본 자료집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은 서면 허락 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